

심의린(沈宜麟)의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연구 동향 고찰

신 원 기*

차 례

- | | |
|--------------------------------|------------------------------|
| 1. 들머리에 | 4.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 식민 담론과 민족 담론 |
| 2.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 아동교육과 애국계몽적 의도 | 5. 맺으면서 |
| 3.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 창작문학과 적층문학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926년에 발행된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인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연구 동향을, 문학기론의 접근법을 원용하여 고찰했다.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에 대한 성과는,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배경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을 했다는 것, 심의린을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보기 힘들다는 것, 『조선동화대집』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 등이었다. 그 한계는 제국주의 침략의 의도와 애국계몽적 의도의 근

* 부산 동천고등학교

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 심의린의 논저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식민사관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아동을 위한 이야기’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의 구분이 힘들다는 것 등이었다.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에 대한 성과는, 『조선동화대집』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는 것, 『조선동화대집』에는 소담(笑談) 또는 소화(笑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우의적 성격과 그 의미를 밝힌 것, <반쪽이>의 최초 판본을 『조선동화대집』으로 규정한 것, 『조선동화대집』 소재 <개구리 神仙>은 변안 작품이 아니라 광포 설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등이었다. 그 한계는 『조선동화대집』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우리 전통 설화에 이미 내재된 특징일 수 있다는 것, 유형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우의의 유형 설정 기준이 없다는 것, ‘외다리 반쪽이’ 형을 보편적 구전설화로 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 <개구리 신선>은 <개구리 왕자>와의 친연성이 훨씬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림형제의 동화 <개구리 왕자>를 변안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 등이었다.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에 대한 성과는, 『조선동화대집』은 『조선동화집』을 복원·보충하여 민족적 심성이나 정신을 전수하려 했다는 것,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는 내선일체의 강조 또는 조선의 특색과 모습 제시 등의 특징이 있다는 것 등이었다. 그 한계는 일부의 이야기를 근거로 『조선동화대집』을 『조선동화집』의 ‘되받아 쓰기’라고 규정한 것,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들도 결국은 내선일체의 정책에 부합하고 있었다는 것 등이었다.

주제어 :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작가론적 관점, 작품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1. 들머리에

심의린(沈宜麟)의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은 1926년에 발행된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이고 설화집이다.¹⁾ 이 책은 자료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 때문에, 진작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소장처나 실체를 알 수 없었는데, 2008년에 복사본이 나오고, 2009년에 영인본이 출간되었다.²⁾ 그 이후로 『조선동화대집』의 자료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를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조선동화대집』의 출간과 그에 대한 논문이 발행된 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동안에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시도되었다. 작가에 대한 연구, 작품에 대한 연구, 책 자체에 대한 연구, 발행 과정에 대한 연구, 발행 배경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학술적 대상의 접근에 있어서는 연구의 다양성 못지않게 연구의 방향성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 접근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점검하여 어떤

1)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이라는 규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이라는 규정에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동화대집』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발행된, 일제강점기 치하의 여러 재담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재담집은 설화로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설화로 보기 어려운 재담(才談)도 있어서, 온전한 설화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화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되려면 서사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재담집에는 서사적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재담들도 다수 존재한다. 즉, 화(話: 이야기)가 아니라 담(談: 말)으로 존재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조선동화대집』에는 거의 모든 동화 또는 설화가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조선동화대집』을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양상은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을 참조하고, 일제강점기의 재담집은 ‘정명기, 『한국재담자료집성』 1~3, 보고서, 2009.’을 참조할 것.

2) 심의린 著, 신원기 譯解, 『조선동화대집』, 보고서, 2009.

성과와 한계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고구하고자 한다. 발표된 여러 논문들의 성과를 살펴 그 장점을 살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남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후속 연구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고의 목적은, 과거에 진행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에 진행될 심층적 연구의 다양한 단초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그 동안 발표된 『조선동화대집』 관련 논문을 연대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김경희, 2008.
- ②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권혁래, 2009.
- ③ 일제 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 권혁래, 2009.
- ④ 沈宜麟의 『朝鮮童話大集』에 나타난 寓意의 유형과 그 의미, 조상우, 2010.
- ⑤ 심의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 김미영, 2011.
- ⑥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과 그 편찬 배경, 백민정, 2012.
- ⑦ 수록 민담의 유형 분포 분석을 통한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 고찰, 백민정, 2012.
- ⑧ 전래동화가 옛이야기 전승에 미치는 영향: <반쪽이> 이야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 김환희, 2013.
- ⑨ 우리 옛이야기,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 - 1920년대 『조선동화대집』을 중심으로, 최윤정, 2013.
- ⑩ 심의린의 이력과 『조선동화대집』 발간에 대한 재검토 - 1926년까지 간행된 한글 설화집을 중심으로-, 김광식, 2014.
- ⑪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동화집> 연구 - 1920년대 동화집을 중심으로, 이현진, 2014.
- ⑫ 심의린의 전래동화 장르 인식과 텍스트 양상 -『혹 달닌 노옹』을 중심으로-, 강상대, 2016.

⑬ 심익린의 「개구리 神仙」 연구, 권혜경, 2017.

이 외에도 다른 논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검색 가능한 일반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선동화대집』과 관련된 박사 논문은 백민정, 서영미, 김경희가 저술한 세 편이 있다.³⁾ 이 중에서 김경희의 논문만 따로 살피기로 한다.(본고에서 논문 번호 ⑭로 설정함.) 백민정의 박사 논문 결론은 그의 일반 논문 2편의 결론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영미의 박사 논문은 북한 구전동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언급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결과도 기존 연구에서 한 번씩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이다.⁴⁾

『조선동화대집』과 관련된 저서도 세 편이 있다.⁵⁾ 이 역시 각 저자의 일반 논문에서 밝힌 결론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기에, 본고의 고찰에서는 따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일반 논문들도 위에서 밝힌 논문 외에 『조선동화대집』 관련 논문이 몇 편 있고, 논자가 발표한 논문도 3편이 있다.⁶⁾ 관련 논문은 『조

3) ① 백민정,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② 서영미, 『북한 구전동화의 정착과 변화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③ 김경희, 『심익린의 동화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4)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발로 『조선동화대집』이 발행되었다는 점과, 『조선동화대집』 소재 작품을 최인학의 분류법에 따라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소화(笑話), 기타 등으로 유형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28~40쪽) 이런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참고만 하기로 한다.

5) ① 심익린 지음, 최인학 번역,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② 권혁래, 『일제 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③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6) ① 『『조선동화대집』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8집, 2008. ② 『번안동화(설화)의 문학교육적 지향성 고찰: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

선동화대집』을 간접적으로 또는 일부만 다루어서 고찰에서 참고만 했다.⁷⁾ 그리고 논자가 발표한 3편의 논문은, 타자에 의해 보여짐을 모르는 객관화되기 전의 ‘나’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⁸⁾ 주장의 객관성을 위해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논자는,⁹⁾ 본고에서 살피는 논문 한편 한편이 모두 엄청난 땀과 애대움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본고에서는 각 논문의 논지나 근거의 빈틈을 살피고자 한다. 물론 이 빈틈으로 인해서 해당 논문의 논지나 주장이 손상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해당 논문의 빈틈을 살피고, 그 빈틈의 보충을 통해서 『조선동화대집』의 본모습에 더욱 객관적으로 다가가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 논문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문학이론의 접근법을 원용했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적 소통 행위이며,¹⁰⁾ 문학현상은 문학의 생산, 독자의 문학 수용, 문학 속에 반영되어 들어오는 세계, 그리고 문학 자체의 구조라는 측면으로 구분되고,

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2집, 2010. ③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교육적 가치: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5집, 2011.

7) 『조선동화대집』을 간접적으로 살피거나 일부만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반쪽이 유형을 중심으로-, 노영근,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제38집, 2007. ② 고전소설의 동화적 변모 -<홍부전>을 중심으로-, 권순궁,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제27집, 2009. ③ 『토끼전』의 동화화 과정, 권순궁,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6집 1호, 2012. ④ <콩쥐팍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권순궁,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제34집, 2012. ⑤ 20세기 초 고소설 동화화와 그 의미, 조혜란,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제37집, 2014. ⑥ 근대 설화집의 여성 형상화 연구 -『온돌야화』, 『조선민담집』, 『조선동화대집』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류정월,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집, 2016.

8) 라깡의 표현을 따르면 거울단계이다. 권택영 엮음, 『육망 이론』, 문예출판사, 2000, 15쪽.

9) 본고에서는 다른 논문의 필자는 ‘저자(著者)’로, 본고의 필자는 ‘논자(論者)’로 지칭하기로 한다.

10) 허창운,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7쪽.

이를 각각 표현론, 효용론, 반영론, 구조론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¹¹⁾ 따라서 발신자-메시지-수신자, 그리고 세계의 반영은 어느 시대, 어느 문학 연구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러한 표현론적, 효용론적, 반영론적, 구조론적 접근은,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한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밝힌 『조선동화대집』의 ‘특색(特色)’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성도서주식회사는 1926년 11월 4일(목요일) 동아일보 5쪽에서 『조선동화대집』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本書의 特色

- 一. 純全한 朝鮮童話를 모집하였스니 教育的 價値와 歷史, 風俗, 習慣 研究 材料를 具備
- 二. 諺漢文에 諺文附音을 하였으므로 學校나 家庭이나 各界 人士의 通讀에 至便
- 三. 語法은 朝鮮語教科書에 用한 京城標準語 發音法에 依하였으므로 課外 讀物로 적절
- 四. 語體는 兒童 心理에 맞는 文藝的 演說體로 하였으므로 朝鮮語 『話方』 時間에 唯一 材料
- 五. 口讀과 대고 세이는 것을 一一히 注意하였으므로 朝鮮語 作文의 조흔 標準
- 六. 體裁와 表紙, 紙質, 活字 等に 特別 注意하였스니 兒童 心理에 반 드시 大歡迎

본서의 특색

1. 순전한 조선 동화를 모집하였으니 교육적 가치와 역사, 풍속, 습관 연구 재료를 구비
2. 언한문에 언문부음을 하였으므로 학교나 가정이나 각계 인사의 통독에 지편
3. 어법은 조선어교과서에 용한 경성표준어 발음법에 의하였으므로

1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96~97쪽.

과외 독물로 적절

4. 어체는 아동 심리에 맞는 문예적 연설체로 하였으므로 조선어 『話方』 시간에 유일 재료
5. 구두법과 대고 떼이는 것을 일일이 주의하였으므로 조선어 작문의 좋은 표준
6. 체제와 표지, 지질, 활자 등에 특별 주의하였으니, 아동 심리에 반드시 대환영

항목별로 살펴보면, 1은 반영론, 2는 작품론+효용론, 3은 작품론+효용론, 4는 효용론, 5는 작품론, 6은 효용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 ‘경성사범학교 선생 심의린 편찬’이라고 제시하여 작가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표현론적, 효용론적, 반영론적, 구조론적 접근은 어느 시대, 어느 문학 연구에서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학이론의 접근법을 고려하여, 『조선동화대집』을 연구한 여러 논문의 논지나 주장의 성향을 4가지로 구분했다. 해당 논문이 작가 연구인지, 독자 연구인지, 당대 현실 관련 연구인지,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인지에 따라 작가론적 관점, 독자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작품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한 편의 논문이 여러 관점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논지나 거시적인 주장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정 관점으로 분류할 것이다.

2.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 아동교육과 애국계몽적 의도

작가는 문학의 소통 행위에서 발신자에 해당한다. 작가가 텍스트를 창조해야만 독자에게 전달이 가능하다. 이 때의 발신자의 행위 또는 텍스트 창조 행위는 작가가 지닌 주관적 내용을 밖으로 유출시킨 결과로 생

겨나는 것이다.¹²⁾ 모든 문학 작품은 작가의 창조적인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작가가 지닌 독창적인 세계가 중시된다.¹³⁾ 즉, 한 작품의 명백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생산자인 작가임에 틀림없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작가 연구자는 작품 생산에 관련된 작가의 모든 면모를 다 파헤치고자 한다.¹⁴⁾ 그래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나 체험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작가에 대한 이러한 역사전기적 방법은 작품의 이해를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이용될 경우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¹⁵⁾

물론 저자의 죽음을 말하는 바르트의 주장을 따르면,¹⁶⁾ 작품이 일단 생산되면 작가의 기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품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 내는 산물인 만큼 작품 연구에서 빠질 수 없다.¹⁷⁾ 작품을 창작하는 개인은 개별성과 집단성을 함께 지니기도 하지만, 작품 창작에서 개인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작가는 개인 체험을 이끌어내어 작품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개인 체험을 보편적인 의미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¹⁸⁾

작가의 개별성과 집단성을 고려할 때, 심의린과 『조선동화대집』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에는 설화를 채록했거나 재화(再話)한 작품이 많다. 그래서 이를 개인 체험이 아니라, 집단 체험 또는 민중 체험으로도 볼 수 있다. 설화는 구비문학이기에 공동작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⁹⁾ 하지만 공동 창작과 향유의 특징을 지닌 설화라도, 작가의 언어로 기록되거나 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

12)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24쪽.

13)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295쪽.

14)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93, 39쪽.

15)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44쪽.

16) 롤랑 바르트 지음,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20쪽.

17) 김옥동,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8, 286쪽.

18)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115쪽.

19)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5~6쪽.

체험이나 개인 성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자 심의린에 대한 개별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작가론적 관점의 접근도 가능하다.

심의린의 작가론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이는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심의린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전기적 자료도 거의 없고, 주변 인물이나 가족, 친인척들도 찾기 힘들었다. 다행히 김경희의 박사 논문에서 심의린의 전기적 자료, 주변 인물, 가족과의 인터뷰를 찾을 수 있다.²⁰⁾ 최근에 이루어진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에 해당되는 일반 논문은 3편이 있다.

- ⑥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과 그 편찬 배경, 백민정, 2012.(어문연구학회, 『語文研究』 73호, 2012.)
- ⑩ 심의린의 이력과 『조선동화대집』 발간에 대한 재검토, 김광식, 2014.(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 제42집, 2014.)
- ⑫ 심의린의 전래동화 장르 인식과 텍스트 양상, 강상대, 2016.(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문예창작』 15권 제3호, 2016.)

백민정은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과 그 편찬 배경』이라는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조선동화집』, 『조선동화대집』, 『조선전래동화집』)의 성격과 그 편찬 배경을 연구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의 편찬을 통해 우리말 교육 및 민족 문화 보존을 위해 일제에 저항하였다고 한다. 일제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제거하려 했다면, 심의린은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는 독립 염원과 저항을 『조선동화대집』 편찬을 통해 드러냈다고 했다. 일제가 제국주의적 침략적 의도로 동화집을 편찬했다면, 심의린은 애국계몽적 의도로 동화집을 편찬했다는 것이다.

20) 김경희,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19~46쪽.

특히, 『조선동화대집』은 한문이나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편찬되었는데, 이는 심의린이 조선어학회 회원이고 여러 가지 연구·교육서를 저술한 것에서 확인했다. 조선어학회는 한글을 통해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려 했던 단체였다. 그리고 조선어 교육 및 사용이 정책적으로 금지된 시기에 심의린은 조선어 사전, 문법책, 지도서 등을 발간했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심의린은 일제 치하의 어린이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교육적 목적으로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했다고 한다. 또한 백민정은 『조선동화집』은 제국주의적 침략 목적으로 편찬되었고, 『조선동화대집』과 『조선전래동화집』은 애국계몽 목적으로 편찬되었다고 했다. 그 이유로 편찬 주체의 이질성을 들고 있다. 『조선동화집』은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조선동화대집』과 『조선전래동화집』은 식민지에 항거한 인물이 편찬자이다. 즉, 일제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목적으로 아동을 위한 동화집을 편찬했고, 심의린은 우리말 교육을 통한 광복을 위해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아동’을 식민지 국민을 만들려는 대상으로, 심의린은 ‘아동’을 광복의 꿈을 실현시킬 주체로 보았다는 것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김광식은 「심의린의 이력과 『조선동화대집』 발간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 출간 관련 이력을 상술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심의린이 1926년 『조선동화대집』을 발간하기 이전에 이미 발표한 동화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심의린은 1924년 아동 잡지 『신소년』에 <전설 완고양반>(1924.3.)과 <유복자의 효성>(1924.8.)을 수록했는데, 이 2편의 설화는 『조선동화대집』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유복자의 효성>은 『조선동화대집』과 완전히 일치하고, <전설 완고양반>은 첫 부분만 특정 공간을 일반 시공간으로 변경했다고 보았다. 또한 심의린은, 황기식이 1925년 초등교육연구회에서 발행한 『수양취미과 외독본 동화집』에 실린 120편의 이솝 우화를 교열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논의에서 김광식은 『조선동화대집』 출간과 관련한 선행 연구자

들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심의린을 민족주의자로 보는 경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관련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과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을 이분법적, 또는 대립적인 경향으로 파악했다. 조선총독부로 대표되는 식민지 교육과 심의린으로 대표되는 민족 계몽 교육이 그것이다. 하지만 김광식은, 심의린이 관여한 조선어연구회가 일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심의린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심의린이 식민지 상황의 조선어 연구자였고, 조선어교육-말하기교육을 위해 동화를 활용했는데, 이때 말하기는 일제의 식민교육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조선어 및 일본어 교육과 관련된 심의린의 논저를 제시하면서, 결국 심의린은 근대 이전 조선사회의 풍습·관습에 비판적이었고, 식민사관에 가까운 조선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강상대는 「심의린의 전래동화 장르 인식과 텍스트 양상」이라는 논문에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은 ‘동화책’의 의미보다는 ‘교재’의 의미가 더 강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심의린은 아동을 문학 감상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어문 교육의 대상자로 보았고, 학습을 통해 조선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측면이 농후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전래동화는 ‘아동을 위한 이야기’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라는 기의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라는 기의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더욱 강조되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에서 1910년대에 세 차례 걸쳐 조선의 민간전승 자료들을 조사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 조사는 문화 발전, 학문적 목적이 아니라, 일제와의 동화(同化)라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을 출간한 의도는 ‘동화책’의 의미보다는 ‘교재’의 의미가 더 강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심의린은 『조선동화

대집』 출간 당시 보통학교 훈도였고, 『조선동화대집』을 ‘담화재료’-‘이야기하기 재료’로 제공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후 서술에서 강상대는, <혹 달닌 노옹>을 예로 들어, 『조선동화대집』이 ‘아동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이고, ‘동화책’의 의미보다는 ‘교재’의 의미가 더 강했다고 하면서, 결국 심익린은 아동을 문학 감상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어문 교육의 대상자로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세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다. 우선 첫째 논문은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배경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일제침략기라는 당대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동화집의 편찬 의도를 제국주의 침략의 의도와 애국계몽적 의도로 파악하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저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두 의도,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와 애국계몽적 의도가 시행되었다고 했다. 일본 제국주의적 입장에서도, 조선 애국계몽적 입장에서도, 아동은 각자의 의도 실현 대상으로 가장 유용하고 희망적인 존재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점은 동화집의 발간 의도를 작가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독자 입장에서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물론 발행의 주도권은 작가나 기관에 있었겠지만, 예상 독자를 상정하고 고려하여 책을 발간하였다는 것에서 수용론적 관점의 연구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 『조선동화대집』의 수용론적 접근은 거의 없거나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후 이 방면의 연구에서 이 논문은 화두나 단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다음 사항을 재론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제국주의 침략의 의도와 애국계몽적 의도로 양분하여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의도를 밝힌 결론은, 좀 더 많은 근거를 필요로 한다. 심익린이 애국계몽적 의도로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했다는 근거는 그가 교육자였고, 조선어학회 회원이었고, 조선어 관련 교육 자료를 발간했다는 것이다. 이 근거

중에서 조선어 교육 자료의 발간은 애국계몽적 의도를 드러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자였고, 조선어학회 회원이어서 심의린을 애국계몽적 의도를 지닌 인물로 보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이 시기 정규 학교의 교사가 민족 교육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식민지 동화(同化) 교육, 한민족(韓民族) 우민화(愚民化) 교육, 민족 교육 탄압, 일본어교육 강화, 한민족 문화 말살 교육 등을 통한 식민지 교육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²¹⁾ 따라서 정규 학교에서의 민족 교육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육자여서 민족 교육을 했다는 결론은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다. 심의린의 조선어학회 회원 이력도 검증이 더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가 아닌, 일본인이 관여한 성격이 다른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²²⁾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박영만·방정환 등의 민족 세력이 애국 계몽을 목적으로 동화집을 편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을 애국 계몽의 목적으로 편찬했는가에 대답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논문에서는, 『조선동화대집』 이전에 심의린이 발표한 동화가 있다는 것과, 심의린을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최초의 동화집 이전에 이미 발표한 동화가 있다는 사실은, 작품이 온전한 창작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영향 아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작가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작가의 창조는 공허한 어떤 공간 속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²³⁾

2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이시용,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찰』,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教育論叢』 제18권 1호, 2001.'을 참조할 것.

22) 심의린이 1920년대에 입회한 조선어연구회는 일본인의 조선어 장려 학습을 추진한 단체로, 후일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와는 다른 단체라고 한다. 김광식, 『심의린의 이력과 『조선동화대집』 발간에 대한 재검토』, 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 42호, 2014, 458쪽 참조.

하지만 심의린의 일부 논저를 통해, 그를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물로만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재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심의린의 논저가 당시에는 얼마나 식민사관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의린의 식민지 교육 참여가 어쩔 수 없는 협조였는지,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당대의 상황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심의린의 식민사관적 저술과 말하기교육은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어교육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논문은 『조선동화대집』이 ‘아동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이고, ‘동화책’의 의미보다는 ‘교재’의 의미가 더 강했고, 심의린은 아동을 문학 감상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어문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관점, 또는 저자가 의도한 독자의 계층이나 상황으로 논의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하지만 몇 가지 남는 문제가 있다. ‘동화책’과 ‘교재’의 차이, ‘아동을 위한 이야기’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교수·학습의 현장에서, 교재와 교과서는 다르다. 교재는 ‘교수·학습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본질적으로 표상적인 물리적인 실체’인데, 수업 상황에서 배경(background)으로 또는 전경(foreground)으로 등장할 수 있다.²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한 학교 교육의 주된 교재로서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 도서이다.²⁵⁾ 즉, 교과서는 규정된 텍스트이지만, 교재는 열린 텍스트이다. 많은 교재 중에서 의도된 과정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교과서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재보다 구체성과 체계성을 지니며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²⁶⁾ 어떤 자료든 수업 과정, 교수·학습 과정에 제공될 수 있다.

23) 허창운,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31쪽.

24)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8, 89~91쪽.

2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2006, 81쪽.

이때 제공된 텍스트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교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텍스트이고, 교과서는 좁은 의미의 텍스트이다. 그렇기에 동화책과 교재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어떤 동화책이라도 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을 위한 이야기’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도 구분이 모호하다. 문학에는 원래 교시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²⁷⁾ 아동을 위한 이야기로도 아동을 가르칠 수 있고,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로도 아동을 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문학 감상의 주체와 어문 교육의 대상자도 구분이 모호하다. 문학 감상의 주체가 어문 교육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어문 교육의 대상자가 문학 감상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는 주로 심의린의 ‘아동교육과 애국계몽적 의도’를 밝히는데, 그 공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 과정과 결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심의린의 ‘아동교육과 애국계몽적 의도’는 심의린이 경성사범학교 교사이고, 『조선동화대집』이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출발점은 작가론적 관점의 기초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다. 심의린이 교사이니, 그가 출판한 책은 아동교육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책은 식민지 시기에 우리 동화와 설화를 한글로 출판한 책이어서 애국계몽적 의도가 내재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렇게 본다면, 심의린의 생애와 『조선동화대집』을 통해 ‘아동교육과 애국계몽적 의도’를 밝힌다는 것은 다소 단선적인 과정으로 보일 수 있다. 단선적인 과정이기에, 심의린 당대에 출판된 다른 동화집들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그 당시 출판된 다른 한글 동화집에도 ‘아동교육과 애국계몽적 의도’가 있다고 보아도 별 무리 없는 결론이 될

26)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8, 92쪽.

27)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57~64쪽.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익린의 생애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대 다른 동화집의 발간 의도와 구별되는 심익린만의 고유한 발간 의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범박하게 추정하자면, 상업적 의도를 염두에 두고 『조선동화대집』을 출판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요구가 아닌 순전히 개인적 욕구로 출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동화대집』의 출판 의도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의 고찰이 필요하다.

3.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 창작문학과 적층문학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는 문학 소통의 과정에서 작품 자체에 접근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존재론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모방론은 모방 대상과의 관계에서, 표현론은 표현 주체와의 관계에서, 효용론은 독자와의 관계에서 문학을 보는 것이라면, 존재론은 그러한 관계를 짓지 않은 채 그 자체대로 어떠한 독자적 성질과 법칙을 구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²⁸⁾ 이른바 내재적 접근 방법인데, 작품에 대한 접근을 작가, 독자, 환경 요인은 배제하고 작품 자체에 집중해서 작품의 의미를 연구하는 접근법이다. 즉, 문학 작품을 이루는 다양한 내적인 요소들의 상호 관계와 균형과 통일을 통해 그 미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이다.²⁹⁾

이는 작가론적 관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연구 방법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작가의 삶이나 정신을 배제한 채 문학 작품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려고 한다.³⁰⁾ 작품론적 관점에서는 작가에 대한 접근을 의도의 오류

28)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65쪽.

29)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291~292쪽.

라고 비판하고, 독자에 대한 접근을 영향의 오류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작품의 외부적인 연구로는 문학의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작품의 내부를 연구하고, 작품 자체에 대한 꼼꼼한 독서를 강조한다.³¹⁾

흔히 말하는 형식주의적 방법이나 구조주의적 방법이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 방법이다. 형식주의적 방법이 형식 또는 기법에 대한 접근이라면, 구조주의적 방법은 심층 또는 의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양분하여 접근한다. 즉, 작품에 대한 기법적인 접근과 사상성의 깊이에 대한 접근을 모두 시도한다. 문학을 이해함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역동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³²⁾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역동적 관련성을 고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는 문학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작가, 독자, 세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연구 역시,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가 가장 많이 시도되었는데, 모두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①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김경희, 2008.(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제41집, 2008.)
- ②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권혁래, 2009.(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39호, 2009.)
- ③ 일제 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 권혁래, 2009.(온지학회, 『溫知論叢』 제22집, 2009.)
- ④ 沈宜麟의 『朝鮮童話大集』에 나타난 寓意의 유형과 그 의미, 조상우, 2010.(東洋古典學會, 『東洋古典研究』 제39집, 2010.)

30) 김옥동,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8, 294쪽.

31)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46쪽.

32)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135쪽.

- ⑤ 심익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 김미영, 2011.(한민족어문학회, 『韓民族語文學』 제58집, 2011.)
- ⑦ 수록 민담의 유형 분포 분석을 통한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 고찰, 백민정, 2012.(한국구비문학회, 『口碑文學研究』 제35집, 2012.)
- ⑧ 전래동화가 옛이야기 전승에 미치는 영향, 김환희, 2013.(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13.)
- ⑬ 심익린의 『개구리 神仙』 연구, 권혜경, 2017.(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한국문화기술』 제22호, 2017.)
- ⑭ 『심익린의 동화 운동 연구 - 옛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조선어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김경희 박사학위논문, 2016.(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경희는 『심익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라는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 소재 66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28편 정도의 이야기가 『조선동화대집』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일본인 동화집 3권에³³⁾ 실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나 일본인에 의해서 간행된 동화집과 비교해서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이 확대되고 유래담적인 성격의 이야기가 많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둘째, 사자성어와 속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이야기와 말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명하였다. 셋째, 유래담적인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넷째, 근대의 새로운 가치관인 자본과 경제 생활의 논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저축하여 부자가 되는 비법을 소개하여,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한다. 다섯째, 새로운 사물을 접한 실수담이 보인다. 이

33)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동화집』(1924.9.1.), 松村武雄의 『世界童話體系(조선편)』(1924.9.31.), 中村亮平의 『模範家庭文庫(조선동화집)』(1926.2.6.) 등이다.

를 통하여 신문물에 대한 거부감과 신비함, 호기심을 모두 수용하여, 신문물이 지닌 편리함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그는 이러한 특징을 제시하면서, 『조선동화대집』 이전에 일본인이 발행한 동화는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부여하고 싶었던 인과응보의 논리로 엮여졌는데, 『조선동화대집』은 조선인의 건강하고 발달한 이야기들을 발굴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권혁래는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이라는 논문에서,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하게 된 경위, 수록 작품의 유형 분류, 심의린이 어떤 방식으로 민담을 동화화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심의린은 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동화의 효용성을 인식하여 민담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작품을 선택하고 표현을 다듬어 『조선동화대집』을 편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선동화대집』에 모두 88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소담, 신이담, 동물담, 일반담으로 유형 분류했다. 소담(41편)과 신이담(27편)의 비중이 가장 크고, 소담은 어리석음에 대한 조롱과 기지의 해학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고, 신이담은 탐욕을 경계하고, 선행·형제우애·보은을 강조하는 주제가 많고, 동물담(12편)은 포악한 강자를 조롱하고 지혜로운 약자를 찬미하는 작품이 많고, 일반담(3편)은 모두 효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심의린이 동화의 문학과 효용성을 인식하고 민담을 발굴 정리하여 민족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했다고 한다. 특히 일본인들이 간행한 『조선물어집』 및 『조선동화집』과 대비할 때, 건강한 정서와 풍부한 서사성,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서사성을 강화, 과장과 열거의 방식을 통한 해학성 강화, 당대의 문물을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 현재성을 표현함 등이 장점으로 발현된다고 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조선동화대집』의 문학사적 의의를, 근대 초기 전래동화 형성 및 어린이 교육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과,

1920년대 구비문학 연구사의 공백을 메꾸는 데 꼭 필요한 자료집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들을 유형 분류하여 정리했고, 각 유형별 이야기가 지닌 특징을 찾아내었다. 또한 심익린의 생애에 대한 접근, 당대 일본인들이 발행한 동화집과의 차이점, 『조선동화대집』의 문학사적 의의 등을 밝혀내었다.

권혁래는 『일제 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이라는 논문에서, 『조선물어집』(1910), 『조선동화집』(1924), 『조선동화대집』(1926), 『조선전래동화집』(1940)에 수록된 호랑이·토끼의 서사 양상을 고찰하고, 이의 문학교육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

『조선동화대집』에는 호랑이 서사 15편, 토끼 서사 3편이 나타난다. 이들 작품에서 호랑이는 대체로 ‘어리석은 자’, 토끼는 ‘슬기로운 자’로 인식된다고 한다. 호랑이 서사는 토끼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생성한다. 약한 토끼가 강자인 호랑이를 조롱하는 서사를 통해서, 당대의 약자인 민중이 당대의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토끼 같은 약자가 호랑이 같은 강자를 물리치는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들은 공포와 절망의 극복, 분별력, 웃음, 용기를 심미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일제 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문학교육적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상우는 『沈宜麟의 『朝鮮童話大集』에 나타난 寓意의 유형과 그 의미』라는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에서 우의적 성격을 가진 동화 11편을 선정하여, 보은과 배은의 우의, 속이고 속는 우의, 승리와 패배의 우의 등의 유형을 살피고 있다. 그는 작품성, 비판 의식, 풍자성, 시의성을 기준으로 우의가 강한 작품을 선정했다. 보은과 배은의 우의 유형으로는 <은혜 모르는 호랑이>, <개구리 신선>, <두건 쓴 고양이>, 속이고 속는 우의 유형으로는 <토끼의 지혜>, <피 있는 여우>, <염소의 환갑 잔치>, <개와 범>, <외쪽의 피>, 승리와 패배의 우의 유형으로는 <떡보

의 성공>, <군수와 어린 아이>, <소년 군수>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찾을 수 있는 우의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보은과 배은의 우의는 은혜를 모르는 일본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 속이고 속는 우의는 일제강점기의 세태를 힐난하는 것이고, 승리와 패배의 우의는 식민지인 조선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일본보다 앞서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미영은 『심의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이라는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고찰하여 문학사적 위상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형식적·내용적 특징의 고찰 결과와 그에 따른 문학사적 위상을 다섯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심의린은 『조선동화대집』 통해 우리말 어휘 확충에 힘쓰면서, 재미, 흥미를 유발하여 아동의 상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은 의도로 보아, 심의린은 ‘동화’라는 갈래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선동화대집』에 실린 동화들은 결핍 상황에서 결핍의 제거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것은 식민지 상황 극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심의린은 변안동화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상과 평등 사상을 고취하려고 하였다. 넷째, 『조선동화대집』에는 바보 이야기를 다룬 소화가 많았다. 심의린은 맥락효과를 통해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선인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맥락효과란 어떤 사건을 회상하거나 재인할 때, 그 사건이 발생했던 원래 맥락이 많이 제시될수록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단어가 사용된 환경과 독자가 마주칠 때, 독자에게 더 뚜렷한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맥락효과로 보고 있다. 『조선동화대집』에서 맥락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현장성을 드러내는 사실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다섯째, 『조선동화대집』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선동화집』에서 왜곡한 조선 설화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함께 민족적 기

질의 발현을 찾을 수 있다.

백민정은 『수록 민담의 유형 분포 분석을 통한 일제강점기 3대 전래 동화집의 성격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인 『조선동화집』, 『조선동화대집』, 『조선전래동화집』의 수록 동화를 최인학의 ‘한국민담유형표’에 맞추어 분류하고, 그 유형의 각 동화집별 분포도, 대단위별 분포도, 중단위 및 중하위단위별 분포도를 고찰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의 유형 분포를, ‘소화(42.17%)>동식물민담(30.12%)>보통민담(25.30%)>신화적 민담=기타(1.20%)’로 밝히고 있다. 심의린은 한글학자이자 교육자로 일제강점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조선의 올바른 교육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심의린이 스스로 대상으로 지목한 독자가 ‘학동’이므로, 이들을 의식한 동화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책을 『조선동화대집』으로 보았다. 아동 중에서도 배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움에 적합한 이야기가 좀더 많이 나타난다고도 했다. 소화류 중에서도 ‘바보이야기’나 ‘어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은 지혜를 교훈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의 논문은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를 특정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 분류를 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심의린을 한글학자, 교육자, 일제강점기를 교육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밝힌 것도 의미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김환희는 『전래동화가 옛이야기 전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반쪽이> 이야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반쪽이> 이야기의 최초 판본을 『조선동화대집』에 수록된 <반쪽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후 RR生의 동화 <외쪼기 이야기>가 1929년 11월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고 한다. 그는 <반쪽이> 이야기의 보편적 서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외다리 반쪽이’를 원형으로 보고, ‘두 다리 반쪽이’는 심의린의 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에 나타난 두 다리 반쪽이는, 거의 70년 동안 옛이야기 전승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반쪽이> 이야기는 구전설화에 바탕을 둔 작품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임석재 채록본에 바탕을 둔 <외쪽이> 이야기는 『조선동화대집』의 <반쪽이>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그 차이는 외쪽이가 삼형제, 외쪽이 다리가 하나, 서두에 수태 열매와 쥐가 등장해서 외쪽의 신이한 탄생을 서술함, 호랑이 퇴치 모티프의 삽입 등이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반쪽이> 이야기의 최초 판본을 『조선동화대집』으로 규정하고, 그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동화책들이 『조선동화대집』의 판본을 이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구전설화에 바탕을 둔 ‘외다리 반쪽이’도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혜경은 『심의린의 <개구리 神仙> 연구』라는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 소재 <개구리 신선>을 변안 작품이 아니라 광포 설화의 영향을 받아 심의린이 개작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설화의 ‘두꺼비 신랑’ 화소가 나타나는 작품이 <개구리 신선>과 비슷함을 지적하면서, 변안이 아니라 심의린이 교육적 목적으로 우리 설화를 재창작·개작했다고 주장한다.

논지 전개 과정에서 심의린이 『신소년』에 글을 기고한 사실과, 당시 『신소년』에 관여한 사람들이 조선어학회 회원과 대종교 신자였다는 점을 들어, 심의린 역시 대종교 신자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조선동화대집』에 있는 옛이야기들에서 ‘신선’, ‘선녀’, ‘천상의 존재’ 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심의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 신교에 맞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 신앙을 은연중 드러내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서양의 민담인 <개구리 신선>, <개구리 왕자>, <두꺼비 신랑>에 나오는 개구리 혹은 두꺼비는 모두 남성성의 상징이고, 각각 구애의 대상인 공주, 귀족의 딸, 정승집 셋째 딸 앞에서 멋진 외모를 지닌

남자로 변신한다는 점을, 세 이야기의 유사점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개구리 신선>과 <두꺼비 신랑>의 남성은 천상적 존재인데, <개구리 왕자>의 남성은 지상적 존재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는 세 편 이야기의 서사 양상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개구리 신선>과 <두꺼비 신랑>은 교훈적인 결말을, <개구리 왕자>는 비논리적이고 비교육적인 결말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개구리 신선>, <개구리 왕자>, <두꺼비 신랑>의 결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멋진 외모의 남성으로 변신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한다. 결국 『조선동화대집』 소재 <개구리 신선>은 동서양의 옛 이야기들인 <두꺼비 신랑>, <개구리 왕자>와 비슷한 화소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신선>은 변안이 아니라, 광포설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8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는 양적인 다양함과 질적인 깊이를 함께 갖추고 있었다. 『조선동화대집』의 전체 이야기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연구한 논문(김경희, 권혁래, 김미영, 백민정)도 있었고, 『조선동화대집』의 일부 또는 한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연구한 논문(조상우, 김환희, 김혜경)도 있었다.

우선 『조선동화대집』의 전체 이야기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특징을 밝힌 논문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 논문에 나타난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동화대집』은 당대 일본인들이 발행한 ‘조선동화집’類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다른 특징은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수렴된다. 둘째,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소담, 신이담, 동물담, 일반담 또는 소화,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신화적 민담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소담(笑談) 또는 소화(笑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예상할 수 있

다. 첫 번째 반론은, 심의린과 『조선동화대집』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감정적인 면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로 출간된 최초의 동화집이기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들어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감정은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심의린이 민족주의자였는가 하는 의문 제기는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고찰을 생략하기로 하겠다.³⁴⁾ 그러면 남은 문제는 『조선동화대집』의 작품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작품인가 하는 것이다.

논자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발행한 ‘조선동화집’류들과 『조선동화대집』을 비교해볼 때, 『조선동화대집』에는 조선인의 건강하고 발달한 이야기, 조선 동화를 민족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함, 건강한 정서, 해학성 강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지혜, 식민지 상황의 극복 인식, 조선인에 대한 교육적 측면 강조, 일제에 대한 저항, 민족적 기질의 발현, 일제강점기를 교육으로 극복하려는 의지, 지혜를 교훈으로 하는 이야기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 이유나 근거의 타당성 고찰은 제쳐두더라도, 그 결과인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나는 특징이 과연 『조선동화대집』의 고유한 특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논자들이 밝힌 『조선동화대집』의 많은 특징들이 『조선동화대집』에만 나타나는 특징인지, 아니면 우리 전통 설화에 이미 내재된 특징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동화대집』에만 나타나는 특징일 때에는, 이러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동화대집』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며 전통 설화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면, 이를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34) 심의린이 민족주의자로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린이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조선동화대집』도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견해 또한 의도론적 오류의 위험을 떨 가능성이 있다.

김화경은 『한국의 설화』에서 우리 설화의 특징을 선행필보(善行必報), 악행필벌(惡行必罰), 조소강우(嘲笑強愚), 약승강패(弱勝強敗) 등으로 제시하고 있고,³⁵⁾ 최인학은 『한국 민담의 유형 분류』에서 우리 설화를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소화(笑話), 형식담, 신화적 민담,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³⁶⁾ 그리고 조희웅은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笑譚), 형식담 등 5가지로 유형 분류하고 있다.³⁷⁾ 우리 설화의 특징인 조소강우와 유형 분류에 나타나는 소화(笑話), 소담(笑譚) 등을 보면, 우리 설화에는 웃음, 즉 풍자성이나 해학성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이라고 밝힌, 건강하고 발랄함, 건강한 정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지혜, 지혜를 교훈으로 하는 이야기 등의 특징은 이미 우리 설화에 내재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민지 상황의 극복 인식, 일제에 대한 저항 등의 특징도 항상 긍정적인 사고관을 지녔던 우리 선조들의 의식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다. 즉,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과 패배를 모르는 주인공, 어리석은 강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약자, 웃음 속에서 보여주는 삶의 진실 등은 우리 설화에 내재된 민중 의식이다.³⁸⁾ 이런 근거로 볼 때,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이라고 밝힌 여러 요소들은 이미 우리 설화에 내재된 민중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이라고 밝힌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유형 분류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논자들은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소담, 신이담, 동물담, 일반담 또는 소화,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신화적 민담 등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담(笑談) 또는 소화(笑話)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유형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35)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241~297.

36) 최인학,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263~268쪽.

37)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17~23쪽.

38)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70~74쪽.

않다는 점과, 이러한 유형 분류를 따르면 한 이야기가 두 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논자들의 유형 분류 기준을 보면, 한 편은 조희웅의 5분법에 의거하여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4가지로 유형 분류했다. 조희웅의 유형 분류는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笑譚), 형식담 5가지인데,³⁹⁾ 그 중에서 형식담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 등으로 분류했다. 한 편은 최인학의 KT분류법에 따라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5가지로 유형 분류했다. 최인학의 유형 분류는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소화, 형식담, 신화적 민담, 기타 등 6가지인데,⁴⁰⁾ 역시 형식담은 없는 것으로 보아,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소화, 신화적 민담,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조희웅과 최인학 유형 분류의 단점은, 일찍이 임재해가 지적한대로, Stith Thompson의 『*The Types of the Folktale*』에 제시된 유형 기준을⁴¹⁾ 한국 설화에 적용한 것인데, 갈래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다. 즉, 동물담은 인물을 문제 삼은 것이고, 신이담은 이야기의 내용을, 소화는 내용 가운데서도 미적 범주를, 형식담은 이야기의 형식만을 고려하고 있다.⁴²⁾ 따라서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笑譚) 또는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소화, 신화적 민담, 기타 등의 분류는 그 분류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분류 기준에 따라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들을 분류하다보니, 같은 이야기가 다른 유형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보인다. 권혁래는 『조선동화대집』 소재 83편의 이야기를,⁴³⁾ 소담 41편, 신이

39)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17~23쪽.

40) 최인학,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263~270쪽.

41) 이 책에서는 설화(folktale)를 animal tales, ordinary folk-tales, jokes and anecdotes, formula tales, unclassified tales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Stith Thompson, 『*The Types of the Folktale*』, Indiana University, 1973, 19~20 참조.

42)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19쪽.

43)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가 66편인지 83편인지에 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다르

담 27편, 동물담 12편, 일반담 3편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백민정 역시 83편의 이야기를 동식물민담 25편, 보통민담 21편, 소화 35편, 신화적 민담 1편, 기타 1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충 보아도 소담과 소화 41편: 35편, 동물담과 동식물담 12편: 25편, 일반담과 보통민담 3편: 21편 등 편수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⁴⁴⁾ 이야기의 분류 특징상 한 두편의 가감은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6편~18편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결과는 분류 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그 적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화 분류 기준 자체의 객관성 확보와 그 적용의 엄밀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조선동화대집』의 일부 또는 한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연구한 논문들의(조상우, 김환희, 김혜경)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 논문에 나타난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우의적 성격의 동화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밝힌 것이다. 둘째, <반쪽이> 이야기의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여, <반쪽이>의 최초 판본을 『조선동화대집』으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조선동화대집』 소

다. 이는 『조선동화대집』에 <바보 모집>과 <호랑이 모집>은, 하나의 제목에 각각 10화, 9화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 편으로 처리하면 66편, 각각의 이야기를 모두 독립된 편수(19편)로 처리하면 83편이 된다. 논자는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를 66편(篇) 83화(話)의 이야기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첫째, 『조선동화대집』의 차례에 66편의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일보(1926년 11월 4일 목요일) 3쪽에 실린 신간 소개에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를 ‘六十六種童話(66종 동화)’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19편의 이야기에는 서사 구조를 갖춘 이야기도 있지만, 서사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재담 수준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자는 『조선동화대집』에는 66편(篇) 83화(話)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본다.

44) 이는 66편의 이야기를 최인학의 방식으로 유형 분류한 서영미의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66편의 이야기를 동식물민담 20편, 보통민담 21편, 소화 24편, 형식담 0편, 신화적 민담 0편, 기타 1편으로 분류하고 있다. 권혁래와 백민정의 분류에서는 소화 또는 소담의 편수가 월등히 높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소화의 편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영미, 『북한 구전동화의 정착과 변화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37~40쪽.

재 <개구리 神仙>은 번안 작품이 아니라 광포 설화의 영향을 받아 심의린이 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은 각각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반론은, 우의의 유형 설정 기준이 없다는 것과 해당 작품이 가지는 우의의 의미 논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우의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보은과 배은의 우의, 속이고 속는 우의, 승리와 패배의 우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준에 따라 보은과 배은의 우의, 속이고 속는 우의, 승리와 패배의 우의 등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해당 작품이 가지는 우의의 의미를 규명하는 과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우의(寓意)는 표면적으로는 인물과 행위와 배경 등 통상적인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동시에 추상적 의미의 층이 그 배후에 동반되도록 꾸미는 것이거나,⁴⁵⁾ 행위자나 행동이 일차적 수준에서 일관된 의미를 구성한 후에, 이차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수준을 의미하도록 고안된 서사물이다.⁴⁶⁾ 그렇다면 저자가 언급한 우의적 성격의 동화 11편을 종합하여, 어떤 우의적 유형에 특정한 우의적 의미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어떤 유형에 어떤 이야기가 포함된다는 것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의적 의미의 도출 과정에서는 각각 1편씩의 이야기가 언급될 뿐이다. 보은과 배은의 우의는 <은혜 모르는 호랑이>에서만, 속이고 속는 우의는 <외쪽의 피>에서만, 승리와 패배의 우의는 <떡보의 성공>에서만 그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반쪽이> 이야기의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여, <반쪽이>의 최초 판본을 『조선동화대집』으로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외다리 반쪽이’ 형은 구전설화에 바탕한 보편적 서사이고, ‘두 다리 반쪽이’는 심의린의 개작으로 보았다. 현재 출판되는 <반쪽이> 이야기의 최초 판

45)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233쪽.

46) M. H. 아브라프스 지음, 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8, 6쪽.

본을 『조선동화대집』으로 규정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조선동화대집』이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이기에 때문이다. 하지만 ‘반쪽이’ 이야기의 여러 각편을 분석한 결과, ‘외다리 반쪽이’ 형을 보편적 구전설화로 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반쪽이가 외다리냐 두 다리냐 하는 것은 <반쪽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화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반쪽이>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결핍에서 결핍의 제거로 진행되는 상승류 모델로 볼 수 있다.⁴⁷⁾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다가(반쪽이), 결말에서는 온전한 존재로 귀결된다. 이때의 온전한 존재는 신체의 온전함을 뜻한다기보다는 상황적인 온전함으로 보아야 한다. 이야기 결말에 따라 온전한 신체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⁴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⁴⁹⁾ 신체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시초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말에서는 비록 신체가 ‘외다리 반쪽이’더라도 많은 것을 성취한 상태이기에, 시초의 외다리와는 달리 상황적 온전함-고귀한 여성과의 결혼을 성취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즉, <반쪽이> 이야기는 ‘반쪽이-온쪽이’의 대립과 변화를 보여주는 서사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다리이든, 외다리이든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기표이기에, 서사 진행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쪽이의 다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반편(半偏)’으로 명명한 각편도 보인다.⁵⁰⁾ 즉, 반쪽이의 다리가 외다리 또는 두 다리로 제시되는 것은 설화가 계속 재생되는 성질에서 나타나는 속성인 불안정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그래서 반쪽이가 외다리인가 두 다리인가 하는 것은 유형 분류의 기준이기보다는, 설화의 전승 과정에서 나오는 불

47)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103~110쪽.

48)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 평민사, 1993, 51~54쪽.

49) ①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 평민사, 2011, 133~145쪽. 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99~106쪽. ③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23~126쪽.

50)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 평민사, 2011, 133~138쪽, 142~145쪽.

51)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21쪽.

안정성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세 번째 논문은, 『조선동화대집』 소재 <개구리 神仙>은 번안 작품이 아니라 광포 설화의 영향을 받아 심의린이 개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조선동화대집』 소재 <개구리 신선>이 그림동화집의 <개구리 왕자>의 번안동화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동서양의 민담인 <개구리 신선>, <개구리 왕자>, <두꺼비 신랑>에 나오는 개구리 혹은 두꺼비는 모두 남성성의 상징이고, 각각 구애의 대상인 공주, 귀족의 딸, 정승집 셋째 딸 앞에서 멋진 외모를 지닌 남자로 변신한다는 점을, 세 이야기의 유사점으로 들고 있다. 세 편의 이야기가 유사하기에, <개구리 신선>은 <두꺼비 신랑>의 개작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첫째, 제목에 나타난 남성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목은 작품의 주인공이나 주제, 제재와 관련이 깊은데, 개구리와 두꺼비는 그 상징과 의미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개구리는 서양에서 긍정적 상징물이고, 두꺼비는 동양에서 긍정적 상징물이다. 개구리는 서양에서 창조와 풍요, 보호자, 다산, 소생, 부활을 뜻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몰지각한 사람, 불효자, 식견의 좁음 등의 의미가 강하다.⁵²⁾ 두꺼비는 그와 반대이다.⁵³⁾ 두꺼비는 동양에서는 달의 정령, 집지킴, 재복, 개혁 의지, 지혜 등을 뜻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악, 혐오, 죽음 등을 뜻하며 뱀을 대신하기도 한다.⁵⁴⁾ 그래서 두꺼비를 뜻하는 영어 toad에는 ‘보기 싫은 놈’이란 뜻이 있기도 하다.⁵⁵⁾ 즉, 서양에서

52) ①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30~33쪽. ② 진 쿠퍼 지음,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4, 144~145쪽.

53)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 Kegan Paul, 1983, 114쪽 참조. The toad is the antithesis of the frog, as the wasp is of the bee.

54) ①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235~239쪽. ② 진 쿠퍼 지음,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4, 412쪽.

55) 시사영어사 사전편찬실,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시사영어사, 1999, 2240쪽.

는 개구리가 긍정적 상징이고, 동양에서는 두꺼비가 긍정적 상징이어서, 동화의 제목이 각각 <개구리 왕자>와 <두꺼비 신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개구리 神仙>은 <두꺼비 신랑>의 영향으로 개작되었다기 보다는, <개구리 왕자>의 변안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둘째, ‘공주’, ‘귀족의 딸’, ‘정승집 셋째 딸’이라는 남성의 상대역을 보면, 공주와 귀족의 딸은 친연성이 더 가깝고 공주와 정승집 셋째 딸은 그 친연성이 멀다. 그리고 우리 구전설화에서 ‘공주’ 또는 ‘귀족의 딸’은 그렇게 흔한 등장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설화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귀족의 딸’이라는 표현은 외국 동화의 ‘공주’를 우리 풍토에 맞게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개구리 신선>, <개구리 왕자>, <두꺼비 신랑> 세 이야기가 비슷한 것은 유사한 화소가 문화권에 따라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미천한 남성이 우아한 여성과 결혼한다는 화소가 독일과 한국에 전승되는 광포 설화 속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안’은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치는 것인데,⁵⁶⁾ 언어만을 옮기는 번역과는 달리 옮기기의 과정에서 변안자의 주관적, 상상적 개입이 두드러지고, 심한 경우 원작의 상당 부분이 변형되거나 침식되기도 한다.⁵⁷⁾ 따라서 ‘변안 동화’는 외국어로 된 원작 동화의 줄거리를 살리면서,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우리말로 고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개구리 신선>, <개구리 왕자>, <두꺼비 신랑> 세 이야기에서 내용이나 줄거리를 고려하면, <개구리 신선>과 <두꺼비 신랑>의 친연성보다는 <개구리 신선>과 <개구리 왕자>의 친연성이 훨씬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밝힌 몇몇 근거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신선>은 광포 설화 <두꺼비 신랑>을 개작했다기보다는, 그림형제의 동화 <개구리 왕자>를 변안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싶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97쪽.

57)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175쪽.

이 논문에서 심의린을 대종교 신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심의린이 대종교 신자였을 가능성은 열어 둘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조선동화대집』에 ‘신선’, ‘선녀’, ‘천상의 존재’ 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 민족에게는 대종교 이전에, 천신 숭배 사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꾼과 선녀> 설화는 대종교 이전에도 이 땅에서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김경희는 그의 박사 논문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2016.)에서, 심의린의 동화를 대상으로 세 개의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첫째, 심의린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것, 둘째, 심의린 동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심의린 동화의 정체성과 특징을 밝히는 것, 셋째, 심의린의 동화 운동이 한국이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는 것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동화대집』 뿐만 아니라, 『조선동화대집』 이후의 동화 자료인 『실연동화(實演童話)』와 라디오 동화를 함께 살피고 있다.

첫째 목적인 심의린 생애의 재구성을 위해서, 김경희는 심의린의 아들 심양택으로부터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린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고, 심의린의 비극적 삶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⁵⁸⁾

둘째 목적인 심의린 동화의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목적, 『조선동화대집』의 주제 의식, 『조선동화대집』의 특징 등을 밝히고 있다.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목적은, 조선어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58) 심의린의 생애에 대한 접근은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로 보았다. 이는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한 편의 논문이 여러 관점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논지나 주장을 고려하여 특정 관점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김경희의 박사 논문은 그 주된 논지가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이다. 즉,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를 위해,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논문의 관점을 작품론적 관점으로 처리했다.

시 조선어 교과서가 담당하지 못한 조선 아동의 취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선 아동에게 필요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동화대집』에서 강조한 주제 의식을 ‘바보와 피쟁이, 절대적 가치, 현실적 가치’ 등 세 가지로 규정했다. 또한 『조선동화대집』의 특징은 ① 욕심에 대한 경계 ② 가난 극복을 위한 주체적 노력의 강조 ③ 의성어, 의태어, 고유어, 속담 등 조선어의 아름다움을 표현 ④ 정확하고 가치 있는 조선어의 활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더하여 『실연동화』, 라디오 동화를 함께 분석하여 언어적·담화적 측면의 특징(⑤ 풍부하고 정확한 조선어 담화의 추구 ⑥ 조선어의 묘미를 살린 표현의 확장 ⑦ 관용어와 논평을 통한 의사전달력 강화)과 문학적·주제적 측면의 특징(⑧ 당대적 가치관의 강조 ⑨ 어린이의 문제 해결력 강화 ⑩ 모험 서사를 통한 도전 정신 부각)을 밝히고 있다.

셋째 목적인 심익린의 동화 운동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야기 종목의 조선화, 구연 방법의 체계화, 동화를 통한 한국어문학 통합 교육의 선구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하나는 심익린의 생애를 새로운 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동화대집』의 특성을 일련의 ‘운동’의 과정 속에서 연속적으로 살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심익린의 죽음은 ‘1950년 6·25를 맞아 7월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를 의원면직하였으며, 수복한 뒤 6·25 때 좌경학생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부산형무소에 수감중 옥사하였다.’는 것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김경희의 논문을 통해서, 심익린의 죽음과 최후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⁵⁹⁾ 그것도 심익린의 오남(五男) 심양택(沈洋澤)과의 인터뷰를 통한 기록이어서, 그 신빙성이 더해진

59) 김경희, 『심익린의 동화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3~25쪽.

다. 논문에 따르면, 심의린의 자녀 중 월북한 사람과 의용군으로 간 사람이 있어서, 심의린은 1950년 9월 28일 수복 이후 구속되었고, 1951년 2월 17일 부산형무소에서 선밥을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김경희는 『조선동화대집』의 특성을 4가지로 밝히면서, 이후 서술에서 ‘『조선동화대집』-『실연동화』-라디오 동화’로 이어지는 심의린의 일련의 동화 관련 저술, 교육, 활동을 ‘동화 운동’이라고 명명하여, 『조선동화대집』 출판 전후의 맥락을 함께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동화대집』을 총체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즉, 『조선동화대집』의 출간을 일회성이 아니라 동화 운동이라는 연속성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동화대집』의 주제 의식을 규명한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김경희는 『조선동화대집』에서 강조한 주제 의식을 ‘바보와 피쟁이, 절대적 가치, 현실적 가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해당 작품을 분류했다. 이러한 주제 의식과 분류는 기준 설정의 문제, 작품 분류의 문제, 개별적 주제와 집단적 주제의 문제 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첫째, 기준 설정의 문제이다. 김경희는 『조선동화대집』의 주제의식의 기준을 ‘바보와 피쟁이, 절대적 가치, 현실적 가치’로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는 동류항 또는 동류 층위로 묶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바보와 피쟁이(바보, 피쟁이)’는 제재의 관점을 따른 기준이고, ‘절대적 가치(효, 형제애, 은혜, 욕심, 신의)’는 윤리적 관점을 따른 기준이고, ‘현실적 가치(헛된 꿈, 경제적인 문제, 모험과 문제 해결)’는 효용적 관점을 따른 기준이다. 기준 설정의 일관성이 다소 없어 보인다. 둘째, 작품 분류의 문제이다.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으니, 이에 따른 작품 분류에도 착중 및 혼효가 나타난다. ‘바보와 피쟁이’로 분류된 작품 중 <장승 해몽>은 바보와 피쟁이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며, ‘절대적 가치’ 중 ‘형제애’로 분류된 <콩쥐팥쥐>, ‘욕심’으로 분류된 <오작교>는 각각 형제애와 욕심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작품이다. 셋째, 개

별적 주제와 집단적 주제의 문제이다. 김경희는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이러한 주제 의식을 ‘심익린이 『조선동화대집』에서 추구하는 가치’⁶⁰⁾로 보았다. 하지만 『조선동화대집』의 작품은 선행 원전 또는 당대 설화 작품을 개작·변용·재창작한 경우가 많아서, 해당 작품의 주제가 심익린 ‘개인’이 의도한 주제인지, 오랜 전승을 통한 민중 ‘집단’이 의도한 주제인지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논자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동화대집』 소재 66편 작품 중 약 20편 정도가, 『조선동화대집』 발행 시점(1926년)보다 선행한 저서⁶¹⁾ 속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조선동화대집』의 주제가 심익린 개인이 의도한 주제인지, 민중 전승에서 나타나는 주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더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로 『조선동화대집』의 민족주의적 성향, 소화의 비율 우세, 우의적 성격과 그 의미, <반쪽이>의 최초 판본, 변안 작품과 광포 설화의 구분 등을 밝히고 있었다. 이들 결과는 모두 그 근거에 『조선동화대집』이 창작문학인가, 적층문학인가 하는 문제와 맞닿고 있다. 즉,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심익린 개인의 창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비 전승된 적층문학의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하의 결과인 소화의 비율 우세, 우의적 성격과 그 의미, <반쪽이>의 최초 판본, 변안 작품과 광포 설화의 구분 등도 마찬가지로, 창작문학의 특성인지, 적층문학의 특성인지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더구나 『조선동화대집』에 실린 적지 않은 이야기가, 앞선 시기의 재담집에 실린 이야기여서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된다.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여러 특성들이 창작문학의 특성인지, 적층문학의 특성인지에 관한 결론은 쉽지 않다. 이는 문학의 본질인 개성과

60) 김경희, 『심익린의 동화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54쪽.

61) 『요지경』(구할자본, 1910년), 『仰天大笑』(1913년), 『八道才談集』(1918년), 『요절복통 익살주머니』(1921년), 『古今奇談集』(1923년).

보편성 중에서⁶²⁾ 어느 것이 더 강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야기는 인물의 행동과 기능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래동화 또는 설화의 특성상 등장인물이 달라도 그들의 행동과 기능은 바뀌지 않는다. 즉,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⁶³⁾ 따라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들의 기능 또는 특성이 심의린 개인의 창작인지, 아니면 구비 전승되는 설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4.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 식민 담론과 민족 담론

문학 작품은 개인이 창작하지만, 그 개인과 작품은 당대 현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학이 현실 세계 또는 우주와 어떠한 관련을 짓고 있다는 생각은 문학에 대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의 하나이다.⁶⁴⁾ 어떤 위대한 작가의 어떤 위대한 작품도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즉, 작가의 생산적 창조는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며 그 시대적 삶의 현실과 사상적 자산과 실존적 문제성을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⁶⁵⁾

반영론이란 문학을 현실의 반영으로 이해하는 미학을 말한다.⁶⁶⁾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이 현실의 반영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을 보고, ‘과연 실제 그대로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작품의 대상이 되는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반영론

62)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65~69쪽.

63) 블라디미르 프로프 지음,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1987, 25쪽.

64)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9쪽.

65) 허창운,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31쪽.

66)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85쪽.

적 관점이다.⁶⁷⁾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는 사회학적 비평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⁶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라도, 그 작품을 둘러싼 시공적인 맥락과 무관한 진공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출현할 수는 없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표현하는 문학은 곧 사회와 현실을 도외시킬 수 없다.⁶⁹⁾ 즉, 문학의 생산은 일정한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이기에,⁷⁰⁾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는 작품에 반영된 현실을 중시한다.

이처럼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는 문학이 거울과 같이 사회를 반영 또는 재현한다는 관점의 연구이다.⁷¹⁾ 이때의 거울은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작가에 의해 취사 선택된 현실이고 축소 확장된 현실이며, 표층과 심층의 입체성을 띤 현실이다. 즉,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현실의 거울 같은 반영은,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일상적 현실을 유의미하고 질서 있는 문학 적 현실로 재현하고자 하는 반영이다. 이러한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에 해당되는 논문은 2편이 있다.

- ⑨ 우리 옛이야기,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 최윤정, 2013.(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2013.)
- ⑩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동화집> 연구, 이현진, 2014.(한국일본어학회, 『日本語文學』 제63집, 2014.)

최윤정은 「우리 옛이야기,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이라는 논문에서, 식민지 시기에 명확하게 대립하는 두 개의 대립적인 시선을 상정한

67)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290쪽.
 68) 김옥동,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8, 295쪽.
 69)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95쪽.
 70)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159쪽.
 71)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291쪽.

다. 『조선동화집』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시선과 『조선동화대집』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민족의 시선이 그것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선동화대집』이 22편이나 되는 『조선동화집』의 이야기를 재수록하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해서 『조선동화대집』은 『조선동화집』의 되받아 쓰기이고, 식민지 제국으로부터의 탈주 담론이었다고 규명한다.

그 예로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인 『조선동화집』 소재 <심부름꾼 거북이>와 『조선동화대집』 소재 <별주부>의 제목을 비교한다. 그 결과, <심부름꾼 거북이>는 거북이의 수동성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별주부>는 우리 고전과 동화의 연계성을 드러낸다고 한다. 아울러 ‘주부(主簿)’라는 조선의 신분적 특질을 거북이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회·역사적 맥락 읽기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인이 편찬한 『조선동화집』은 우리 옛이야기의 내용을 제목에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을 동화하기 위한 식민 전략이거나 식민지 민족 문화를 폄하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인이 우리 민족의 심성, 정신, 사유 체계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우리만의 독특한 존재나 맥락을 생략·소거하여 우리 고유의 이야기를 보편 담론화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조선동화대집』은 ‘조선적인 것’이나 역사적 맥락을 유표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옛이야기를 복원하거나 보충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동화대집』은 『조선동화집』이 무시하고자 했던 존재나 맥락을 복원·발견하면서, 민족적 심성이나 정신을 전수하는 민족 담론이 된다고 한다.

이현진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동화집> 연구』라는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들이 간행한 ‘조선동화집’類와 심의린이 간행한 『조선동화대집』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1920년대에 일본은 아동문학의 성장기였고, 조선은 아동문학의 발흥기였다. 이 시점에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민속 자료 정리 및 내선일체

(內鮮一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동화집』을 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국내에서도 ‘조선동화집’類가 간행되었다. 미와 다마키의 『전설의 조선』(1919년), 마쓰무라 다케오의 『세계동화대계』 일본편 ‘조선의 部’(1924년), 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1926년), 다나카 우메키치의 『일본옛날이야기집 下』 ‘조선편’(1929년) 등인데, 이는 내선일체의 목적보다는 ‘조선적인 것’들을 소재로 하여 조선적 특색과 조선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조선적 정취의 삽화와 재미있는 구성(『일본옛날이야기집 下』 ‘조선편’), 해학적인 동화와 조선의 고유한 동화 수록(『세계동화대계』 일본편 ‘조선의 部’), 조선 고유의 동화 수록과 다양한 호랑이 동화 수록(나카무라 료헤이의 『조선동화집』)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동화집』은 내선일체의 목적이 보이고,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동화집’類는 조선의 특색과 모습을 전하고자 했다고 한다. 반면에, 『조선동화대집』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을 제시, 이야기의 사실성과 구체성, 인간과 친화적인 호랑이 관련 동화 제시,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에 대한 풍자, 근검절약을 소재로 한 해학적인 내용 등의 특색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위에서 2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조선동화대집』이 『조선동화집』의 되받아 쓰기이고 식민지 제국으로부터의 탈주 담론이었다는 주장의 성과와 남는 문제를 살피기로 하자. 이 논문의 저자는, 제국주의 일본이 식민지 조선 통치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우리 동화가 수집·간행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의 분석을, 제국의 시선으로 대표되는 총독부 발행 『조선동화집』과 식민지 민족의 시선으로 대표되는 심익린 편찬 『조선동화대집』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22편의 이야기를 통해 시도했다. 물론 이 논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 논문이 있었지만, 이 논문의 특징은 결론을 위한 근거가 객관

적이라는 것이다. 이전 논문들이 심의린의 이력을 근거로 『조선동화대집』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다고 밝혔지만, 이 논문은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의 중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동화집』은 우리 민족의 심성, 정신, 사유 체계를 생략·소거하려 했지만 『조선동화대집』은 이를 복원·보충하여 민족적 심성이나 정신을 전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향후 연구에 커다란 지표가 될 듯하다. 그 결론의 정당성과 근거의 명징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분석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조선동화집』과 『조선동화대집』을 식민 담론: 민족 담론의 대립으로 본 결론은, 뚜렷한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저자가 식민 담론: 민족 담론의 근거로 분석한 『조선동화대집』의 이야기는 22편이다. 『조선동화대집』에는 모두 66편[또는 83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자가 분석한 22편의 이야기 외에도 44편[또는 61편]의 이야기가 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저자는 『조선동화대집』 소재 22편의 이야기를 근거로 『조선동화대집』이 『조선동화집』의 ‘되받아 쓰기’라고 규정했는데, 22편의 이야기는 『조선동화대집』 소재 전체 이야기의 1/3 또는 1/4에 해당한다.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조선동화대집』 전체의 성격을 ‘되받아 쓰기’로 규정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1/3 또는 1/4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받아 쓰기’였다면, 나머지 2/3 또는 3/4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되받아 쓰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동화대집』을 『조선동화집』의 ‘되받아 쓰기’로 본 관점은 재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조선동화대집』의 일부 이야기가 식민지 탈주 담론을 의미한다면, 더 많은 나머지 이야기도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의 이야기가 지향하는 의미보다는 더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지향하는 의미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동화대집』에는 우리 고유의 설화를 많이 채록·개작하고 있다. 구비 전승되던 조선의 많은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동화대집』은 조

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동화집』을 ‘되받아 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구비 전승되던 우리 고유의 설화를 ‘되받아 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설화는 민중의 문학이고 민족의 문학으로 존재한다.⁷²⁾ 따라서 『조선동화대집』은, 저자의 결론처럼, 『조선동화집』이 무표화 또는 부정했던 우리의 심성, 정신, 사유 체계를 복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전승되던 우리 설화에 내재된 민족적 심성과 정신을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들이 간행한 ‘조선동화집’類와 심의린이 간행한 『조선동화대집』을 비교·분석한 논문의 성과와 남는 문제를 살피기로 하자. 이 논문 역시 「우리 옛이야기,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이라는 논문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식민지 시기 발행된 일본어로 된 ‘조선동화집’類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작품을 비교하여, 일본어로 발행된 동화집은 내선일체의 강조 또는 조선의 특색과 모습 제시 등의 특징이 있는 반면, 『조선동화대집』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풍자적·해학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특색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논문의 성과는 첫째, 식민지 시기 간행된 일본어로 된 다양한 ‘조선동화집’類를 발굴하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발표된 다른 저자의 논문에서는 민족 담론의 분석 대상은 『조선동화대집』이었고, 식민지 담론의 분석 대상은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동화집』이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식민지 담론의 분석 대상을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동화집』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일본어로 발행된 다양한 ‘조선동화집’類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조선동화집』은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식민지 담론의 책이었고, 일본 국내에서 일본어로 발행된 다양한 ‘조선동화집’類들은 식민지 담론보다는 조선의 특색과 모습을 전하고자 했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이전의 논의에서 『조선동화집』만 분석하여 식민지 담론으로 결론짓는 타성적 결론에서 벗어나,

72)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7~9쪽.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들이 조선과 일본에서 다른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참신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19년 간행한 『전설의 조선』은 조선총독부가 1924년 발행한 『조선동화집』보다 이른 시기에 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동화집』을 우리 동화집의 출발로 삼고 논의를 전개했다. 그런데 이 자료의 확인으로, 우리 동화집의 최초, 저본, 전범의 역할을 한 저서를 『조선동화집』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는 재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위에서 밝힌 이러한 성과 외에 몇 가지 재론할 문제도 남기고 있다. 첫째, 『조선동화대집』의 지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논문의 서론에서,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들과 동시기 국문전래동화집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자는 일본어로 간행된 ‘조선동화집’類들의 여러 특색들을 분석하여, 이 동화집들이 ‘내선일체의 강조’, ‘조선의 특색과 모습을 전달’이라는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선동화대집』의 분석을 통해서도 여러 특색만 제시할 뿐, 이 특색들이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향성(指向性)은 대상으로서의 어떤 것에 의식이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⁷³⁾ 『조선동화대집』의 지향성은, 저자가 밝힌 여러 가지 특색을 통해 심의린의 의식이 구체적으로 향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조선동화대집』의 특색으로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을 제시, 이야기의 사실성과 구체성, 인간과 친화적인 호랑이 관련 동화 제시, 세상 물질 모르는 양반에 대한 풍자, 근검절약을 소재로 한 해학적인 내용’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특색들이 어떤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는 듯하다. 둘째, 비교 대상의 다양성 문제이다. 식민지 담

73) 차인석, 『現象學에 있어서의 指向性과 構成』, 한국현상학회 편,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90, 43쪽.

론의 분석을 위해서는 ‘조선동화집’類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민족 담론의 분석을 위해서는 『조선동화대집』 한 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민지 담론의 분석 대상을 여러 권의 동화책으로 삼았다면, 민족 담론의 분석을 위해서도 그 시기에 우리말로 발행된 다양한 동화책을 대상으로 삼았어야 했다.⁷⁴⁾ 셋째, 『조선동화대집』의 특색 중에서 풍자성과 해학성은 구비 전승되는 우리 설화의 특색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동화대집』에는 우리 설화를 채록 또는 개작한 작품이 많다. 저자가 이 논문에서 풍자성과 해학성이 드러난다고 밝힌 <외쪽의 피>, <문자 잘 쓰는 남자>, <토목공이와 자린고비> 등의 작품은 심익린 개인 창작이라기보다는, 구비 전승되던 우리 설화의 채록 또는 개작으로 보아야 한다.⁷⁵⁾ 그렇다면 <외쪽의 피>, <문자 잘 쓰는 남자>, <토목공이와 자린고비> 등의 작품에 나타난 풍자성과 해학성은 『조선동화대집』의 특색이라기보다는 구비 전승되던 우리 설화의 특색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듯싶다. 넷째, 일본 국내에서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들의 특색에 관한 문제이다. 저자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이 내선일체 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면, 일본 국내에서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들은 조선의 특색과 모습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간행되었다고 한다. 즉,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동화집’類들은 내선일체의 정책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동화집’類들 중에는 책의 제목이 『세계동화대계』 일본편 <조선의 部>(1924년), 『일본 옛날이야기집 下』 <조선편>(1929년) 등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조선의 이야기가 일본의 이야기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동화집에 수록된 조선의 이야기가 내용상으로는 조선의 특색을

74) 박영만, 방정환, 손진태, 마해송 등이 저술한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75)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다양한 각편을 확인할 수 있다. <외쪽의 피>는 3-2권, 4-4권, 7-16권에 나와 있고, <문자 잘 쓰는 남자>는 1권, 4~8권에 걸쳐 수십 편이 있고, <토목공이와 자린고비>는 1-6권, 1-9권, 2-8권, 2-9권, 4-1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드러낸다고 해도, 일본인들은 이 이야기들을 일본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 된다. 즉, 조선의 이야기는 일본의 이야기에 속하고, 결국 조선=일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조선=일본은 바로 내선일체이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조선의 특색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해도, 결국 내선일체의 정책 또는 인식에 부합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는 식민 담론과 민족 담론의 대비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어로 발행한 『조선동화집』 또는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된 ‘조선동화집類’들은, 민족 문화를 폄하했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조선동화대집』은 이에 맞서, 역사적 맥락을 유표화하는 방식으로 민족적 심성이나 정신을 전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물론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 외에 정작 필요한 기초적인 반영을 연구한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즉, 『조선동화대집』에 반영된 당대 조선의 현실을 천착한 논문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동화집이나 설화집과 달리, 『조선동화대집』에는 당대의 구체적 지명, 관직명, 배경 등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자동차(自働車), 서울, 경성, 훈련원, 군청, 군수, 객차, 경성역, 인력거, 차장, 삼등차표, 우편소, 우표, 소포계, 전신선, 전봇줄, 청국(淸國), 대전군(驛傳軍), 지나(支那), 병조판서, 군부대신(軍部大臣), 경인선 철도, 정거장, 피고, 법정, 법관, 사형, 소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단어를 시작점으로 하여, 『조선동화대집』에 반영된 1920년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선동화대집』이 당대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더 고구했으면 한다. 이러한 당대 조선의 현실 반영에 대한 고찰은, 『조선동화대집』이 창작문학인지 적층문학인지를 밝히는 데에도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으면서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가 2017년이니, 거의 10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10년이란 시간은 그야말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어떤 텍스트에 대한 연구에서, 10년이란 시간은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본고에서 13편의 일반 논문과 1편의 박사 논문을 살필 수 있었다. 위에서 살핀 14편 논문의 연구 동향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작가론 | 작품론 | 독자론 | 반영론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⑥ | ○ | | | |
| ⑦ | | ○ | | |
| ⑧ | | ○ | | |
| ⑨ | | | | ○ |
| ⑩ | ○ | | | |
| ⑪ | | | | ○ |
| ⑫ | ○ | | | |
| ⑬ | | ○ | | |
| ⑭ | | ○ | | |

그리고 각각의 관점에 따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작가론적 관점의 연구에 대한 성과는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배경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을 했다는 것, 심의린을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보기 힘들다는 것, 『조선동화대집』은 아동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동을 가

르치기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다음의 한계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제국주의 침략의 의도와 애국계몽적 의도로 양분하여 『조선동화대집』의 편찬 의도를 밝힌 결론은 좀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 심의린의 논저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식민사관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 문학에는 원래 교시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이야기’와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의 구분이 힘들다는 것 등이었다.

작품론적 관점의 연구는 양적인 다양함과 질적인 깊이를 함께 갖추고 있었다. 『조선동화대집』의 전체 이야기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연구한 논문(김경희, 권혁래, 김미영, 백민정)도 있었고, 『조선동화대집』의 일부 또는 한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연구한 논문(조상우, 김환희, 김혜경)도 있었다.

먼저 『조선동화대집』의 전체 이야기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특징을 밝힌 논문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선동화대집』은 당대 일본인들이 발행한 ‘조선동화집’類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다른 특징은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수렴된다. 둘째,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소담, 신이담, 동물담, 일반담 또는 소화, 동식물민담, 보통민담, 신화적 민담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소담(笑談) 또는 소화(笑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다음의 한계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첫째, 『조선동화대집』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조선동화대집』에만 나타나는 특징인지, 아니면 우리 전통 설화에 이미 내재된 특징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유형 분류 기준 자체의 객관성 확보와 그 적용의 엄밀성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조선동화대집』의 일부 또는 한 작품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연구한 논문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우의적 성격의 동화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밝힌 것이었다. 둘째, <반쪽

이> 이야기의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여, <반쪽이>의 최초 판본을 『조선동화대집』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셋째, 『조선동화대집』 소재 <개구리神仙>은 번안 작품이 아니라 광포 설화의 영향을 받아 심익린이 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다음의 한계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첫째, 우의의 유형 설정 기준이 없다는 것과 해당 작품이 가지는 우의의 의미 논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둘째, 반쪽이가 외다리냐 두 다리냐 하는 것은 <반쪽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화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외다리 반쪽이’ 형을 보편적 구전설화로 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개구리 신선>과 <두꺼비 신랑>의 친연성보다는 <개구리 신선>과 <개구리 왕자>의 친연성이 훨씬 두드러지기 때문에, <개구리 신선>은 광포 설화 <두꺼비 신랑>을 개작했다기보다는, 그림형제의 동화 <개구리 왕자>를 번안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정희의 박사 논문이 있었다. 이 논문의 성과는 심익린의 생애를 새로운 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밝혔다는 것과, 『조선동화대집』의 특성을 일련의 ‘운동’의 과정 속에서 연속적으로 살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동화대집』의 주제 의식을 규명한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는 『조선동화대집』에서 강조한 주제 의식을 ‘바보와 피쟁이, 절대적 가치, 현실적 가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해당 작품을 분류했는데, 그러한 주제 의식과 분류는 기준 설정의 문제, 작품 분류의 문제, 개별적 주제와 집단적 주제의 문제 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에 대한 성과는 첫째, 『조선동화집』은 우리 민족의 심성, 정신, 사유 체계를 생략·소거하려 했지만, 『조선동화대집』은 이를 복원·보충하여 민족적 심성이나 정신을 전수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어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는 내선일체의 강조 또는 조선의 특색과 모습 제시 등의 특색이 있는 반면, 『조선동화대집』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풍자적·해학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특색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다음의 한계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첫째, 22편이라는 일부의 이야기를 근거로 『조선동화대집』을 『조선동화집』의 ‘되받아 쓰기’라고 규정한 것이었다. 둘째, 『조선동화대집』의 지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일본 국내에서 발행된 ‘조선동화집’類들도 결국은 내선일체의 정책에 부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진행된 『조선동화대집』의 연구 동향을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 그 연구의 방향이 작품론에 치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가론적 연구나 반영론적 연구는 2~3편에 불과했고, 독자론적 관점의 연구는 1편도 없었다. 이로 보아 『조선동화대집』 연구의 중심은 작품론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연구는 텍스트나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 다른 분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조선동화대집』의 연구 역시 작품론 뿐 아니라, 작가론, 독자론 등의 분야로 다양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학은 단순히 물적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가-작품-독자의 구도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체화되는 문학현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⁷⁶⁾

우선 심의린의 일생과 업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작가론에 대한 논문이 3편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작가론적 연구가 요구된다. 반영론적 관점의 연구도 2편에 불과하다. 『조선동화대집』이 우리 고유의 설화를 많이 수용하고 있지만, 그 채록·개작의 과정에 작가의 관점이나 시대 상황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개인 체험이나 의도, 당시 시대 상황의 반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독자론적 관점의 접근이었다. 독자론적 관점은 효용론적 관점, 수용미학적 관점이라고도 하는데, 그 연원은 플라톤까지 소급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플라톤은 문학의

76)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108쪽.

효용성을 부정하였으나, 그것은 이미 문학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 뒤의 결론이었다.⁷⁷⁾ 독자론적 관점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따르면, 문학 작품의 의미는 인쇄된 지면에 있지 않고 오직 독자의 의식에만 존재할 따름이다.⁷⁸⁾ 즉, 인쇄된 문학 작품은 ‘텍스트’이고, ‘작품’이란 텍스트가 독자의 의식 속에서 재정비되어 구성된 것으로 본다.⁷⁹⁾ 따라서 텍스트(Text)가 수용자에 의해 소통 과정에 놓일 때, 비로소 그것은 심미 대상(객체)으로 화하면서 작품(Werk)이 된다고 간주한다.⁸⁰⁾ 이는 문학 작품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독자에게 수용되고 감상된 텍스트가 진정한 작품이라는 말과 통한다.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빈틈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텍스트는 자체로서는 불확정적인 무력한 상태여서, 독자가 이를 반드시 어떤 확정적 의미의 체계로 살려내야 한다.⁸¹⁾

이러한 독자의 능동적 읽기를 강조하는 독자론적 관점의 접근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자료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동화대집』의 효용-문학교육적 가치를 분석한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⁸²⁾ 본격적인 독자론적 관점의 접근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당시의

77)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71쪽.

78) 김옥동,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8, 295쪽.

79)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170쪽.

80) 허창운,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62쪽.

81)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67쪽.

82) ① 신원기, 『『조선동화대집』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8집, 2008. ② 신원기, 『번안동화(설화)의 문학교육적 지향성 고찰: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2집, 2010. ③ 신원기,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교육적 가치: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5집, 2011.

신문 기사나 광고, 아동 잡지⁸³⁾ 등을 분석하면, 『조선동화대집』에 대한 광범위한 독자론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양적·질적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서론에서도 미리 밝혔지만, 본론에서 살핀 14편의 논문 한편 한편이 땀과 애태움의 결정체임을, 논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본고에서 살핀 해당 논문에 대한 성과와 한계의 고찰이 미흡하거나 논점과 어긋날 수도 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 단견이 있다면, 이는 오로지 논자의 능력 부족과 오독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본고의 서술과 결론이 선학(先學)과 동학(同學)들의 노력에 작은 해로움이라도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83) 1923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어린이』를 비롯한 아동 잡지의 발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162~181쪽.’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 강상대, 「심의린의 전래동화 장르 인식과 텍스트 양상」, 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문예창작』 15권 제3호, 2016.
-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57~95쪽.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3, 96~170쪽.
- 권순궁, 「고전소설의 동화적 변모 -<홍부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제27집, 2009.
- 권순궁, 「<콩쥐팍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연구』 제34집, 2012.
- 권순궁, 「<토끼전>의 동화화 과정」,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6집 1호, 2012.
-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 290~295쪽.
- 권택영 엮음, 『육망 이론』, 문예출판사, 2000, 15쪽.
- 권혁래, 「1920년대 민담의 동화화와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39호, 2009.
- 권혁래, 『일제 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 권혁래, 「일제 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 은지학회, 『溫知論叢』 제22집, 2009.
- 권혜경, 「심의린의 <개구리 神仙> 연구」,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한국문화기술』 제22호, 2017.
-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 김광식, 「심의린의 이력과 『조선동화대집』 발간에 대한 재검토」, 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 제42집, 2014, 458쪽.
- 김경희,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경희, 「심미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제41집, 2008.
- 김미영, 「심미린 『조선동화대집』의 특징과 문학사적 위상」, 『한민족어문학회, 『韓民族語文學』 제58집, 2011.
- 김옥동,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8, 286~295쪽.
-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103~297쪽.
- 김환희, 「전래동화가 옛이야기 전승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2013.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44~85쪽.
- 노영근,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반쪽이 유형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제38집, 2007.
- 류정월, 「근대 설화집의 여성 형상화 연구 -『온돌야화』, 『조선민담집』, 『조선동화대집』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집, 2016.
- 백민정, 「수록 민담의 유형 분포 분석을 통한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 고찰」, 『한국구비문학학회, 『口碑文學研究』 제35집, 2012.
- 백민정,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백민정, 「일제강점기 3대 전래동화집의 성격과 그 편찬 배경」, 『어문연구학회, 『語文研究』 73호, 2012.
-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서영미, 『북한 구전동화의 정착과 변화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2006, 81쪽.
-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21쪽.
- 시사영어사 사전편찬실,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시사영어사, 1999, 2240쪽.

- 신원기, 「번안동화(설화)의 문학교육적 지향성 고찰: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2집, 2010.
- 신원기, 「설화에 나타난 소외의 모습과 문학교육적 가치: 우리말 최초의 설화집 『朝鮮童話大集(1926)』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5집, 2011.
- 신원기, 「『조선동화대집』의 내용과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8집, 2008.
- 심익린 著, 신원기 譯解, 『조선동화대집』, 보고사, 2009.
- 심익린 지음, 최인학 번역,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67~233쪽.
-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9~165쪽.
-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93, 39쪽.
- 이시용,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찰」,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教育論叢』 제18권 1호, 2001.
- 이현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동화집>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日本語文學』 제63집, 2014.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 평민사, 2011, 133~138쪽.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1, 평민사, 2011, 51~54쪽.
-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19쪽.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5~74쪽.
- 정명기, 『한국재담자료집성』 1~3, 보고사, 2009.
- 조상우, 「沈宜麟의 『朝鮮童話大集』에 나타난 寓意의 유형과 그 의미」, 東洋古典學會, 『東洋古典研究』 제39집, 2010.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소명출판, 2009, 162~181쪽.
- 조혜란, 「20세기 초 고소설 동화화와 그 의미」, 한국고소설학회, 『고소설 연구』 제37집, 2014.

-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17~23쪽.
- 차인석, 『現象學에 있어서의 指向性과 構成』, 한국현상학회 편,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90, 43쪽.
- 최윤정, 『우리 옛이야기,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2013.
- 최인학,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263~270쪽.
-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8, 89~92쪽.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30·239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97쪽.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175쪽.
- 허창운, 『현대문예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7~62쪽.
- 롤랑 바르트 지음,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20쪽.
- M. H. 아브람스 지음, 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8, 6쪽.
- 블라디미르 프로프 지음,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1987, 25쪽.
- 진 쿠퍼 지음,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4, 144·412쪽.
-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 Kegan Paul, 1983, 114쪽.
- Stith Thompson, 『The Types of the Folktale』, Indiana University, 1973, 19~20쪽.
- 1926년 11월 4일(목요일) 동아일보 3쪽, 5쪽.

<Abstract>

A Study of Research Tendency about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 *Jo-Soen DongHwa
Daegip*: Anthology of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 Written by Shim-EuiRin.

Shin, Won-Gie*

This study consider that research tendency about Shim-EuiRin's 『*Jo-Soen DongHwa Daegip*』, which was published 1926 and became the first Korean Language fairy tale-folktale book.

Achievements of the study with the writer's point of view are like these: wide approach about editing backgrounds of 『*Jo-Soen DongHwa Daegip*』, claims that it is hard to regard Shim-EuiRin as the person of nationalism tendency, and the fact that 『*Jo-Soen DongHwa Daegip*』 have stories to teach children.

And there are unsettled questions: the fact that it requires more reasons about imperialistic invasion and patriotic enlightenment intention, that it needs more analysis about whether Shim-EuiRin's writings is close to the colonial view of history or not, and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story for teaching from the story for children.

Achievements of the study of with the literary work's view are these: the fact that 『*Jo-Soen DongHwa Daegip*』 indicates

* Dong-cheon High School

nationalism tendency, the fact that 『*Jo-Soen DongHwa Daegip*』 have many humor stories, 『*Jo-Soen DongHwa Daegip*』's allegoric character and meaning, that 『*Jo-Soen DongHwa Daegip*』 is the first version of <semi-person>, <Frog Taoist hermit> is influenced by wide-spread folktales.

And there are unsettled questions : that 『*Jo-Soen DongHwa Daegip*』's nationalism tendency is a character of folktale, criteria of type classification is vague, there is no criteria of allegoric classification, that it is plausible to think of <Frog Taoist hermit> as an adapted story of <Frog Prince> since there are some similarities.

Achievements of the study with a reflection theory's view are these: that 『*Jo-Soen DongHwa Daegip*』 is intended to success to Korean Spirit or mind through compensating 『*Jo-SoenDongHwaGip*』, that all kinds of 『*Jo-SoenDongHwaGip*』 in Japanese Language have characters Naeseon Ilche(Korea and Japan are One' policy) and JoSeon's features.

And there are unsettled questions : that 『*Jo-Soen DongHwa Daegip*』 is a writing of copying 『*Jo-SoenDongHwaGip*』 with partial reasons, that all kinds of 『*Jo-SoenDongHwaGip*』 in Japanese Language indicates Naeseon Ilche(Korea and Japan are One' policy).

Key Words : Shim-EuiRin, 『*Jo-Soen DongHwa Daegip*』, Writer's point of view, Literary work's view, Reflection theory's view.

■ 논문접수 : 2017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7년 8월 19일

■ 게재 확정 : 2017년 8월 21일